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5> 말재주나 부린다면

흔히 큰스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법문(法門) 한다고 말한다. 법문이란 법문하는 스님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이 되어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보여 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보여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법문(法門)이다. 이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분사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법을 배워 그 근본을 먼저 스스로 깨우쳐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도를 이루기도 전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혀끝에 발린 말재주만 일삼아서 스스로 도를 깨친 양 깨달음을 얻은 체한다면, 그것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탐욕이나 다름없다. 이런 수행자의 모습은 마치 더러운 뒷간에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푸르고 붉은 단청을 하는 것과 같다. <선가귀감> 55장에서 말한다.

學未至於道 衒耀見聞 徒以口舌辯利相勝者 如厠屋塗丹雘

도(道)를 이루기도 전에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문(見聞)을 남에게 자랑하고 뽐내면서 부질없이 말재주를 부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서로 보려고 다툰다면, 이는 마치 허물어져 가는 뒷간에다 푸르고 붉은 화려한 단청을 하는 일과 같으니라.

'현요(衒耀)'는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뽐내며 다닌다는 뜻이니, '현요견문(衒耀見聞)'은 자신의 견문(見聞)을 남에게 자랑하고 뽐내며 다닌다는 것을 말한다.

'구설(口舌)'은 입과 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입에 발린 말로써 말재주를 부린다는 뜻이다.

변리(辯利)는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여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말이고, 상승(相勝)은 자신의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말재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이구설변리상승자(徒以口舌辯利相勝者)'는 부질없이 말재주를 부려 조그마한 이익이나 서로 보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깨친 체하는 행위는 거짓말과 구분된 대망어
수행자는 말을 적게 하고 몸 움직이지 말아야

'측옥(厠屋)'은 허물어져 가는 뒷간을 말하고 '단확(丹雘)'은 붉은 빛의 선명한 흙이나 염료를 말한다. '여측옥도단확(如厠屋塗丹雘)'은 마치 허물어져 가는 뒷간에다 푸르고 붉은 화려한 단청을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을 말한다.

허물어져 가는 뒷간에 푸르고 붉은 화려한 단청이 어울리지 않듯이, 맑고 깨끗해야 할 수행자들이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더럽힌다는 것은 수행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구업(口業)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망어(妄語)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고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들이다. 이는 명성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말로서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들이다.

둘째는 기어(綺語)이니 비단결 같은 말로 푸짐하게 실체가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화려하게 남의 마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말들이다.

셋째는 악구(惡口)이니 화를 내면서 험하고 거친 말로 꾸짖고 매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다.

넷째는 양설(兩舌)이니 이간질시키는 말이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 말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싸움을 붙이는 말들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別明末世愚學 學本修性 全習爲人 是誠何心哉

이 단락은 말세에 어리석게도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일깨워 주는 말이다. 배움이란 본디 자신의 성품을 닦는 것인데 공부한다는 것이 오로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어 버리니, 참으로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란 말인가?

'우학(愚學)'은 공부 길을 잘못 알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습위인(全習爲人)'은 도를 이루려 공부하면서도 오로지 익히는 일이[全習]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爲人]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공부하는 이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

배움이란 본디 자신의 성품을 닦는 일인데, 이것을 등지고 남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 버렸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더군다나 수행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함부로 해나가다, 만약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말해버리기라도 하면, 이것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자리를 잃는 것이며 부처의 씨앗을 없애는 결과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비구의 구족계(具足戒)나 대승계의 범망경보살계에서도 이 거짓말을 대망어죄(大妄語罪)로 규정하며 출가인의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 곧 근본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하고 깨친 체하는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위를 일반적인 거짓말과 구분하여 대망어(大妄語)라고 한다.

율장(律藏)에서는 이 대망어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비구들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여 승단(僧團)에서 축출시켜 비구의 명줄을 끊어 놓는다. 자비를 내세우는 문중에서 사망선고와 같은 이런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때, 공부가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짓 깨달음이 얼마나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줄 알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고행(苦行) 정진을 하셨고 달마 대사는 묵묵히 9년 동안 소림굴에서 벽만 바라보며 참선을 하셨다. 참선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 옛 어른들의 자취를 본 따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모름지기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고 말을 적게 하면 슬기로운 마음이 된다. 참된 바탕은 모두 말을 떠나 있는 것이요 참된 이치는 움직이는 허상이 아니다.

입은 불행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만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초발심자경문>에서 야운(野雲)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庵絶往來
寂寂寥寥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몸과 마음 고요하여 흔들림 없고 / 침묵 속에 띠집 토굴 앉아 있으니
텅 빈 충만 번거로운 일이 없어서 / 마음속의 부처님만 마주 한다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보시(布施)

불교계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최근 '1만 가족 공동체운동' 전개를 선언했습니다. 동참자들은 이웃을 위해 하루 100원씩 매일 저축해 기금을 적립해 회향하거나, 하루 1분씩 기도해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나눔'을 일상화하게 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10년까지 1만 가족 동참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보살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 가운데 으뜸인 '보시(布施)' 생활화운동으로 해석돼도 무방할 듯합니다. 보시라 하면 사찰에서 불사할 때 시주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쉬우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재물을 베푸는 것(財施) 외에도,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法施), 두려움을 덜어주는 힘과 지혜를 주는 것(無畏施)도 값진 보시입니다.

보시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취해야 할 네 가지 태도(四攝法) 중의 하나로도 꼽힙니다. 네 가지 태도란 보시, 애어(愛語 · 중생을 따뜻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대함), 이행(利行 · 선행으로 이익을 줌), 동사(同事 · 타인과 일심동체가 돼 협력함)입니다. 이쯤이면 보시는 보살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대품반야경>은 "보시할 때 자기를 붙잡지 않고, 받는 이를 붙잡지 않고 베푸는 물건을 잡지 않으며 과보도 바라지 않아야 참된 보시"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이런 청정함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모으고, 타인을 위해 기도해봅시다. 우리 사는 이 땅이 더욱 맑고 향기로워지지 않을까요?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4>

늙음과 자연

최근 경제가 좋아지면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많은 부분을 건강에 할당하고 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경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탄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미래 유망 기술 16가지 중, 9가지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것이다.

이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된 듯하다. 젊은 피부를 가지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오래 근육을 가지고 싶어 한다. UN 보고서는 현재의 생명과학의 발전이 이어진다면, 수명이 150세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행복,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담론이나 고민은 작다. 단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매달리는 인간의 목적 지향적인 행위만 있는 듯이 보인다.

난잡하고 불규칙한 늙은 피부는 자연의 법칙
젊어지려는 것보다 '참나' 찾는 것이 지혜로와

늙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정서이다. 부처님도 생, 로, 병, 사를 인간의 '고'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이클이 없다면 '고'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기보다, 생로병사 사이클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존재에 내재해 있는 성질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한편으로 70세에 '종심소욕이라도 불유구(마음이 가는 데로 행동하여도 선을 넘지 않는 경지)'라고 즐거워 했던 공자의 인생관이 놀라운 지혜로 느껴진다. 늙음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태도는 동양의 오래된 전통이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피부 단면을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가진 젊은 피부에 비해서 늙은 피부는 난잡하리만큼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 화장품 개발자는 이러한 불규칙화 하는 배열을 바꾸기 위한 화학물질을 찾고 있고, 생명과학자는 이러한 배열에 관계하는 DNA 부분이나 물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무질서해지는 것이야 말로 자연의 법칙이다.

향을 피우면 향 분자가 공기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은 항상 불규칙하게 되려고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과학자들은 불규칙한 정도를 엔트로피라는 상수로 표현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도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방향(불규칙적으로 되려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것이 열역학 법칙이며 한건의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부른다. 컵을 만드는 공장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유리분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컵을 만들었으므로) 컵을 만들기 위해서 태운 연료의 분자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무질서는 증가한 것이 되는 것이다.

생 · 로 · 병 · 사는 과학적으로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 법칙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내재한 '참나'를 찾는 것이 피부를 더 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고'를 뛰어넘은 지혜인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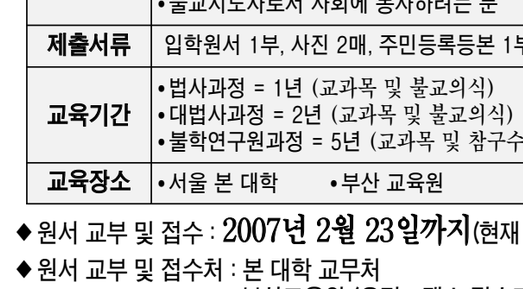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 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 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1월 2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3월 개강 학과] 2007년 2월 28일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 · 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